

**일본 NTT, 일본 IBM;PDA
공동 개발**

일본전신전화(NTT)와 일본 IBM이 손잡고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시장에 진출한다.

이들 두 회사는 PDA를 공동개발해 올 가을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가 기기개발에서 제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회사는 PHS(간이휴대전화)를 매개로 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고 PC 데이터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의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이를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 소형 고성능 정보기기 시장을 개척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일본 IBM과 NTT의 이 시장 동반진출은 샤프의 「자우르스」가 장악하고 있는 일본 휴대정보기기 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NTT는 우선 NTT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를 통해 올해안에 1만대 정도 생산·판매하며 일본 IBM도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두 회사가 공동개발하는 PDA는 내년 봄 개시되는 PHS의 고속데이터통신에 대응하는 등 이동통신과는 접속기능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소프트웨어에는 윈도 3.1을 채용하며 펜입력방식에 무게는 600g 가량으로 소형 노트북PC

보다 약 200g 가볍다. 가격은 17만엔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PDA시장은 지난해 약 70만대, 올해 100만대로 전망되는 등 확대추세에 있다.

**미국 TI사, 노트북 신제품
출시**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사가 이번주 중에 노트북PC 신제품을 출시했다.

TI가 출시하는 노트북PC 「트래블메이트 6000」은 2개 모델로 펜티엄 프로세서와 12인치 컬러 모니터를 채용했고 도시바의 동급 기종보다 무게가 약 2파운드 정도 가볍다.

제조비용도 절감시킨 하이엔드 모델인 「트래블메이트 6030」의 경우 4,999달러로, 같은 사양의 도시바 제품보다 1,300달러나 싼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TI의 노트북사업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시장점유율도 지난 1·4분기 현재 4.2%로, 작년 동기의 1.7%보다 크게 증가해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 도시바 간부였던 스티브 레이어를 휴대형 컴퓨터 판매 및 마케팅 책임자로 영입함과 동시에 이 부문 기술개발에 주력해온 TI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그동안 취약했던 마케팅력을 보강, 판매 확대를 통해 내년 말까지는 시장순위 3위 안에 진입

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미쓰비시전기, 유럽연합
ACTS(차세대 통신기술)계
획 참여**

일본 미쓰비시전기가 EU(유럽연합)의 「ACTS(차세대통신기술)계획」에 참여한다.

미쓰비시는 EU의 ACTS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차세대 초고속 무선통신기술 개발사업에 포르투갈 텔레콤, 영국BBC, 독일 다임러 벤츠 에어로스페이스(DASA) 등 유럽 기업 및 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한다.

미쓰비시가 참여하는 분야는 21세기 멀티미디어기술의 하나인 이동통신단말기로 하이비전수준의 고품질 영상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광대역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사업이다.

이 시스템은 40GHz대의 밀리파를 사용, 현재 디지털휴대전화의 250배 이상에 해당하는 34Mb의 초고속무선통신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미쓰비시는 이번 개발사업에서 무선신호의 제어·처리 및 관련된 반도체개발 등 핵심기술을 담당하게 되는데 7월부터 3년간 총 13억엔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쓰비시는 이번 유럽의 통신개발프로젝트참가를 통해 차세대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EU는 GSM성공 이후 유럽에서 개발된 통신기술의 규격을 아시아 및 중남미·중동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표준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쓰비시는 지난해 9월 영국과 프랑스에 정보통신관련 연구소를 발족시키는 등 EU의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유럽에서의 연구개발을 강화해왔다.

General Instrument, ATML에서 ATM기술 도입

General Instrument사 산하 Next Level Communications는 캘리포니아주 Sunyvale에 있는 Advanced Telecommunication Modules, Ltd. (ATML)과 라이선스 협정을 체결, ATML이 개발한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Next Level은 ATML의 기술을 이용해 초당 51Megabits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PC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비롯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ATML은 Olivetti Research Labs에서 1993년 분리, 설립된 업체다.

미국 반도체 업계 3개사, 대만 TSMC와 웨이퍼 공장 합작 건설

Analog Devices, Altera, Inte-

grated Silicon Solutions 등 미국의 세 반도체 회사는 대만의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SMC)와 웨이퍼 공장을 합작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워싱턴주 Camas에 설립되는 WeferTech는 12억달러가 투입되는 공장을 건설해 1998년 말부터 월 1만장의 8인치 웨이퍼를 생산하고, 1999년 말까지는 웨이퍼 생산량을 월 3만장으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Wafertech 대표이사직은 TSMC의 Morris Chang 대표이사가 담당하기로 했으며, 사장직은 Micron Technology에서 근무했던 Kenneth G. Smith씨가 맡기로 했다.

TSMC는 WaferTech 지분의 57%를 소유하기로 했다.

NEC, SYMETRIX : FERAM 개발에 협력

일본의 NEC는 차세대 Ferro-Electric RAM(FerAM)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의 Symetrix사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개발할 FerAM은 전원이 차단되어도 수록된 데이터를 상실하지 않으며, 기존의 플래쉬 메모리 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입력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두 회사는 NEC의 메모리 칩 기술과 Symetrix의 초전도 소재 기술을 활용, FerAM을 개발할

방침이다.

TOSHIBA, 탁상용 PC시장 진출

노트북 PC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 있는 Toshiba America Information systems가 탁상용 PC 시장에도 진출하기로 했다.

New York에서 최근 개최된 PC Expo에 참석한 Toshiba의 Tom Scott 부사장에 따르면, Toshiba는 가정용 PC 시장을 겨냥한 탁상용 PC 신제품을 올 가을 발표하고, 내년 1/4분기에는 기업 사용자들을 위한 제품도 발표할 계획이다.

Scott 부사장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노트북 PC 사용자층, 유통망 및 서비스 체계를 활용해 탁상용 PC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Toshiba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를 비롯,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첨단 기술을 PC 사업에 응용할 계획이다.

미국 PCB 시장, 연 7.8%씩 성장

미국의 PCB(Printed Circuit Board) 시장이 연평균 7.8%씩 성장, 2000년에는 1백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주 Oyster Bay에 있는 시장조사 업체 Allied Business Intelligence(ABI)의 최근 보고서

방“Printed Circuit Board Fabrication To 2001”에 따르면, PCB에 대한 수요 증가는 PC업계와 음성, 데이터 및 비디오 통신 시스템 업계가 주도하고 있다.

미국 PCB 시장의 성장 속도는 전세계 시장의 성장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ABI는 전세계 PCB시장 규모가 지난해 269억달러에서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미국의 PCB 제조업체수는 지난해 650개 이상에서 2001년에는 400개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ABI는 연 매출액 1,500~2,000만 달러 규모의 업체들은 경쟁사들에 합병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Intel, 중국 Shanghai 공장 착공

Intel은 중국 Shanghai지역의 Pudong Industrial District에 건설하기로 했던 공장의 건설에 최근 착수했다.

이 공장은 Intel의 중국내 첫 공장이 되는데, 1998년 초부터 486마이크로프로세서 및 플래쉬 메모리 칩을 조립, 테스트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Intel을 중국에 유치하는데 중요한 의미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합작 업체를 설립해야 한다.

Intel의 Shanghai 공장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 주로 제품

을 공급할 예정이다.

Intel은 이 공장을 Pentium 프로세서 생산에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또한 Intel은 중국의 Huajing Electronics Group과 제휴, 마이크로 콘트롤러를 조립 생산하는 소규모 합작 사업을 작년 9월 시작한 바 있다.

Intel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도 반도체 조립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AT & T, 영국 CARDCAST에서 ISDN 콘트롤러 기술 도입

AT & T는 영국의 Cardcast가 개발한 “D2000 ISDN Communication Controller”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AT & T는 Cardcast의 ISDN 콘트롤러 기술에 대한 영국내 독점 사용권과 나머지 유럽 지역에서의 비독점 사용권을 확보했다. Cardcast는 신용카드 도용방지 기술 개발업체로서, 이 회사의 D2000 콘트롤러는 석유산업계의 온라인 거래 시스템 “EUREKA”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Hitachi, 세계 최고속 수퍼컴퓨터 개발

일본의 Hitachi가 세계에서 가

장 빠른 수퍼컴퓨터 생산업체로 부상했다. 미 동력부 산하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계 최고속 컴퓨터는 히타치의 “SR2201”로서, 초당 2,200억회 이상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

SR2201은 1,024개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초병렬 처리형 컴퓨터로, University of Tokyo에 최근 설치됐다.

종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퍼컴퓨터는 일본의 Fujitsu Ltd.가 공급했었는데, 초당 1,700억회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이 컴퓨터는 일본의 National Aeronautics Laboratory에 설치돼 있다.

한편, 이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연구원 Jack Dongarra씨는 Intel이 올해 안에 sandia National Laboratories에 설치할 컴퓨터의 성능이 Hitachi의 SR2201을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4,500만 달러에 공급될 Intel의 컴퓨터는 9,000개의 Pentium Pro 프로세서를 사용해 초당 1조회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

Mitsubishi, IOMEGA “ZIP” 드라이브 시장 진출하기로

일본의 미쯔비시가 고용량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기술 “LS-120”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 “Zip” 드라이브로 이분야 시장을

방선점하고 있는 Iomega사와 경쟁하기로 했다.

Mitsubishi의 이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Iomega의 주식 가격은 18일 28%나 하락, 주당 26.75달러를 기록했다.

LS120 기술은 Minnesota Mining & Manufacturing Co.(3M)와 일본의 Matsushita-Kotouki Electronics Industries Ltd.가 공동 개발했는데, LS-120 방식 디스크에는 120MB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PC업체 Compaq Computer는 지난 4월부터 LS-120 드라이브를 일부 제품에 채택하고 있다.

LS-120 드라이브는 기존의 1.44MB 및 720KB 디스켓 또한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Iomega의 Zip 드라이브는 100MB 디스켓만을 작동시킬 수 있다.

ACER AMERICA, 10배속 CD-ROM 드라이브 발표

대만 Acer산하 Acer America는 업계 최초의 10배속 CD-ROM 드라이브 "CD-610A"를 199달러에 시판한다고 New York에서 개막된 PC Expo 전시회에서 발표했다.

Acer에 따르면, CD-610A 드라이브는 기존의 8배속 드라이

브 보다 40% 빠른 속도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내장형으로 설계된 CD-610A 드라이브는 Windows 3.x, Windows 95, Windows NT 및 OS/2 Warp 운영시스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Acer에 관한 정보는 <http://www.acer.com/aac/>에서 입수할 수 있다.

WEBTV, 얽가형 인터넷 TV 기술 개발

캘리포니아주 Palo Alto에 있는 신생업체 WebTV Networks가 일반 TV를 사용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개발, 9월부터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WebTV는 Apple Computer 출신 인사 세명이 설립했는데, 인터넷을 TV의 한 채널처럼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Set Top Box오 특수 리모트 콘트롤 기술을 개발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WebTV는 일반 TV로 VGA 모니터 수준의 이미지를 재생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특허를 취득했으며, 이를 이용한 하드웨어 제품은 200달러 수준의 가격과 시판 예정이다. TV를 이용해 인너텍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은 Gateway

2000, NetTV 등이 이미 발표했으나, 이들의 제품은 고해상도 TV 모니터를 필요로 하고 있다.

WebTV Networks의 기술담당 부사장 Phil Goldman씨는 자사 제품에는 28.8Kbps(Kilobits per second) 모뎀이 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WebTV는 이 회사 제품을 이번달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SONY, 멀티미디어 PC 사업 본격화

Sony 산하 Sony Information Technologies of America는 시판 가격 2,000~3,000천 달러급의 멀티미디어 PC를 이번주 New York에서 개최되는 PC Expo에서 발표, 미국의 PC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Sony는 캘리포니아주 San Jose에 1992년 설립 한 연구개발 센터에서 멀티미디어 PC를 설계했으며, 제품 생산은 캘리포니아주 Sa Diego 소재 공장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Sony는 입체 그래픽스 및 고성능 사운드 기능을 강조한 멀티미디어 PC를 통해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Apple Computer를 주요 경쟁 상대로 삼게 된다.